

화장품 수입 116% 폭증

94년 수출입 역조폭 4.7배 벌어져 ... 선진국 편중

94년 1 10월기준 완제화장품 수입이 93년대비 116.4% 증가하는 급증세를 보이고 수출입 역조도 4.7배에 이르는 등 화장품의 무역역조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화장품 수출입현황(1994.1 10)		
(단위: 1000달러, %)		
구 분	수 입	수 출
EU (유럽연합)	56,915	2,750
프 랑 스	42,192	151
미 국	25,134	7,712
일 본	23,341	798
독 일	9,322	424
오스트레일리아	5,364	263
스 위 스	2,989	106
벨 기 에	1,928	-
영 국	1,897	1,143
말 레 이 지 아	1,293	2,896
이 태 리	1,199	-
대 만	906	1,773
뉴 질 랜 드	905	21
캐 나 다	787	217
이 스 라 엘	750	58
모 나 코	477	-
칠 레	466	155
오 스 트 리 아	313	-
싱 가 폴	302	4,871
네 덜 란 드	283	161
기 타	1,183	13,977
합 계	117,946	37,476

주) 통관기준

수입대상 국가도 EU(유럽연합)·프랑스·미국·일본 등 선진공업국에 편중돼 있어 수입의 과점화가 극심하고 국적불명의 제품도 마구잡이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던져주고 있다.

이같은 상황은 최근 한국무역협회(회장 구평회)가 상공부통관기준의 화장품의 국가별 수입실적(94년 1 10월기준)을 조사분석한 결과 밝혀졌다.

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4년 (1 10월)의 수입액은 1억7794만6000달러로 93년동기대비 116.4%나 증가하는 수입폭주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되는 화장품도 대부분 EU·프랑스·미국·일본에서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어 국내 제조기업의 유명국가제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시사했다.

이는 93년 상공부 통관기준 수입액인 1억4151만2000달러에서 이들 국가의 제품이 80.0%(1억1324만5000달러)를 차지하고 94년에도 1 10월 사이의 수입액의 83.0%인 1억4758만2000달러를 기록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1995/1/23>

